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11) (5/21/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7 장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피함, 3 절

빌 2:3 -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삼상 16: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시 147:10-11 - 10.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3.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달라서,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이 더 많이 있다고 믿고서, 늘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아래에 두는 것은 전혀 해로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늘 평안이 있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노가 끊임없이 들끓습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로 말씀하신다. 빌 2:3 -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낮아짐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셨고, 그 모습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설사 나에게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회심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빌 3:8-9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삼상 16:7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자랑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처신을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많은

이들이 어떤 것을 과장하고 꾸미면서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허풍을 떨며 함부로 떠벌리듯 자랑하지 않게 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하고 칭송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달리 평가하실 때도 많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람이 찾는 것과는 다른 것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시 147:10-11 - 10.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때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게 된다.

겸손한 사람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높아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 놓고 낮아짐으로 불필요한 욕심, 시기, 질투의 마음을 비워 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지나친 탐욕과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시기과 질투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주 다툼에 연루된다. 잠 13:10 -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22:10 -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바울은 골 3 장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권면했다. 골 3:12-15 -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 때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기쁨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3. 죽고 죽이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얀마를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